朝鮮日報
朝刊
本紙特刊並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軍縮幹部會再開無望

一

일즉이 華盛頓과 倫敦의 兩條約으로써 軍縮을 斷行하야 잇든 海軍이 日本의 均勢主張과 米國의 比率主義支持、表面的으로는 方今 그 兩條約의 滿期를 압두고 多端한 將來를 보이어 잇슬뿐이 아니라 大戰以後恒常問題되어 끄치고 何等의 實績을 나타내지 못한 一般軍縮도 지금에 이르러 獨逸의 再軍備主張과 佛國의 安全保障要求로 더 以上 論議의 餘地조차 가지지 못한다。現下에 잇서 世界風雲의 急迫과 第二次大戰의 不可避는 거의 流行的으로 絶叫되고 잇는바 海軍縮少條約의 瀕危로 因하야 日英米三國의 海軍擴張競爭이 갑작이 늡고 一般軍縮의 斷望을 딸아 歐洲各國의 關係가 자못 緊張한 터로 그것이 반듯이 神經過敏의 헛된 소리라고 만은 보아 버릴수 업는 일이다。더구나 우리는 蘇聯의 特異한 政體와 밋 그 重工業의 高速的 發達을 이저서는 안된다。蘇聯의 政策이 果然 그들 自身의 말대로 國際平和에 忠實하든지 아니 그와 反對로 國際政治의 攪亂을 目的하든지는 莫論하고 그들로 더부러 國境을 接한 딴 나라로부터는 狐疑의 마음을 이르키고 虎視의 눈동자를 굴리게 되는 것도 免치 못할 事實이다。

二

極東覇國의 日本을 牽制키 爲하야 米國에서 蘇聯을 承認한 것가치 나치스의 獨逸을 抑壓키 爲하야 佛國은 親蘇로 기울어저 蘇聯의 國際聯盟加入을 斡旋하고 東歐로카르노條約의 實現을 劃策한다。이와 가튼 蘇聯의 國際的進出이 國際關係의 一大轉動을 意味하지 안는 것은 아니로되 그로써 곳 海軍條約의 再締結과 一般軍縮의 成立을 保障하랴는 것은 아즉도 疑問에 屬하는 바다。世間에서는 蘇聯의 聯盟加入을 뒤이어 東歐로카르노條約이 實現된다면 一般軍縮會議도 一條의 曙光을 마즈리라고 보나 蘇聯의 聯盟加入을 波蘭이 同意하는 것은 東歐로카르노條約의 抛棄를 佛國이 補償條件으로 提出한 것이라고 傳하니 一般軍縮의 局面打開도 그다지 容易한 일이 아니다。英伊가 다 함께 佛蘇親善을 好意로 解釋하고 잇스며 그 中의 伊太利는 近來 佛國에 極히 接近하여 가매, 一部로부터 軍縮에 對한 佛伊乃至英伊의 妥協이 進行되리라고도 豫想하나 佛伊蘇의 結合으로서 만은 歐洲의 大勢를 支配하기가 어렵고 英國까지의 加擔은 期必할 수 업는 터인즉 그 역시 곳 그리 타고 合理的으로 肯首키 困難하다

三

日英米佛伊各國이 反蘇의 戰線으로 一致한 步調를 取할수 잇느냐。日本과 米國의 折衝이나 佛國과 獨逸의 和解도 決코 難事가 아니려니와 그것은 各國의 利害對立으로서 現在 그 不可能을 立證하고 잇는바다。英米佛伊蘇各國이 共同의 한 陣營으로 한께 모힐수 이느냐。極東과 中歐의 모든 問題를 强力的으로 解決하려는 氣勢를 보려하도 하려라마는 그것도 不便、英米의 利害對立으로써 그 可能을 斷言할수 업게 된다。何如튼 蘇聯의 聯盟加入을 어더 聯盟各國은 日獨兩國의 脫退後의 氣色이 依然하든 聯盟으로 하야금 새로운 길을 열도록 꾀할것이요 蘇聯도 權度의 軍縮을 主唱하는 蘇聯이 聯盟에 加入하야 軍縮問題로 하야금 새 進展을 보이도록 努力할 것이겟지만, 自利本位에 終始하는 各國의 軍縮對策은 좀처럼 [illegible] 보리라고는 생각되지 안는다。어떠한 方法으로든지 軍縮에 對한 妥協이 成立되지 안는 限 世界의 平和란 오즉 잠고대에 不過할 뿐이다。昨日의 報道를 보면 一般軍縮會議의 議長 헨더슨氏도 分開關軍縮幹部會의 再開를 斷念하고 드듸어 十二月本國으로 歸還하고 말엇다고 한다。이것은 究竟軍縮에 對한 헨더슨氏의 活動도 아모 所得을 엇지 못한 것으로 軍縮의 依然한 難事임을 意味하는 데 지나지 못한다。

關東廳全職員의 辭表今日中收合

本廳三局以下一萬以上의官吏 提出토록準備完成

【大連十三日發】關東廳各課職員及 現業各官署職員의 辭表는 續續本廳에 到着中으로 今明日中에는 全部모혀질 模樣이다 그數는 本廳三局十三課及 外局三局、三民政署、六取引所、高等法院 地方兩法院 二十四、警察署 刑務所、試驗所、博物館、圖書館、病院、學校等 總員一萬以上에 達할터로 全部모혀진後 機構問題研究委員의 손을 通하야 日下內務局長 手許에 保管하야 何時에든지 關東長官에 提出할수 잇도록 準備가 完成될터인데 此等辭表中에는 多數의 血印과 血書가 석겨 잇다

菱刈關東廳長官 重大決意를言明

日下、中村兩局長會見時

【電通大連十三日發】關東廳長官菱刈大將은 今番의 在滿機構改革問題紛糾에 際會하야 드듸여 辭意를 固辭하는 模樣으로 十二日、日下、中村兩局長이 職員總辭職決意를 報告키 爲하야 長官을 訪問하엿슬때 長官은 重大決意를 한 旨를 言明하고 또 側近者에도 最近辭意를 漏洩하엿다고 한다

十四日閣議서 圓滿히解決?

在滿機構改革問題

改革案은 今年中에實現

【東京電話聯合】在滿機構改革解決案은 十四日閣議에 附議決定하기로 되엿는데 陸軍에서는 案의 重大性에 鑑하야 其實施方法에 對하야 政府와 交涉한 結果 大體左와 如한 手續을 取하게 되엿다

一、同案閣議決定後 案內容의 重大性에 鑑하야 上奏勅裁를 仰할 것

一、同案은 可及的速히 各種手續을 取하야 實施할 것

一、勅裁를 기다려 法制局에서 官制를 制定하고 樞府의 御諮詢手續을 取하야 實施에 要할 諸費도 豫備金支出로 行할 것

一、改革案은 各種手續을 完了하고 今年中에 實現케 할 것

【東京電話聯合】在滿機構改革問題에 關하야 三省關係間에 意見이 一致되엿슴으로 岡田首相은 十四日閣議에서 在滿政治機構改革案을 議題로 하고 于先 河田書記官長으로부터 關係各省間에서 折衝한 經過及結果를 詳細報告한 後 다음 岡田兼攝拓相으로부터 拓務省의 事情을 披瀝하야 審議에 들어갈 터인데 이미 關係閣僚間에 決定을 본 것인즉 異議업시 決定한 다음에 改革(在滿政治機構改革案)大綱을 公表키로 되엿다 이로써 陸、外、拓三省間에 意見이 對立되여 오든 在滿機構改革問題도 大團圓을 볼 模樣이다

拓務首腦部 拓務案을力說

【東京電話聯合】在滿機構改革에 關하야 拓務省案은 全然沒却되엿슴으로 拓務省事務當局은 非常히 憤慨하야 이러케 된 以上 卑劣한 姑息手段을 取할것업시 어데까지 拓務省案을 最善의 案이라고 하야 正面으로 折衝案에 反對키로 되엿다 十三日午前十時 岡田兼攝拓相이 官邸에 入하기를 기다려 田中拓務次官 河田秘書官 井阪參與官 北島殖産局長等은 岡田拓相과 會見하고 于先 折衝案決定까지의 經緯를 聽取한 다음 拓務案이 妥當하는 所以를 力說하고 拓務當局의 意見을 明確히 하고 首相과 懇談하엿다

工場主頑强으로 調停委員斷念

【華盛頓十二日發聯合】全米織物工罷業은 形勢依然險惡을 極하고 잇는바 十二日에 至하야 大統領의 指名한 調停委員은 드듸여 調停不可能하다고 調停을 斷念케 되엿다 原因은 工場主側이 調停委員의 從順에 對하야 何等讓步의 빗을 보이지 안코 終始 非妥協的態度를 取하얏슴으로 委員會는 十二日 左와 如한 聲明을 發하야 그 立場을 明白히 하얏다 調停委員會는 二日間에 亘하야 努力하엿슴에 不拘하고 我等은 工場主側에서 調停의 基礎가 될것을 得치 못하엿다 그러나 我等은 他에 解決方法이 잇다고 確信한다

調停不奏效 罷業益惡化

【電通華盛頓十二日發】米國未曾有의 織物大罷業을 解決키 爲하야 루스벨트大統領이 任命한 調停委員會는 勞資雙方間에서 斡旋하엿스나 兩便이 모다 强硬하야 奏效치 못하엿다 이에 對하야 勞働總同盟會長 그린氏는 이리된 以上 調停委員會로서는 루스벨트大統領의 힘을 빌수밧게 업서 不遠間大統領에 對하야 勸告案을 提出할 것으로 豫想된다 그間 罷業은 一層惡化하야 十二日 로드•아일란드州 세이루스빌에서 五千名의 罷業團과 一千五百人의 州兵間에 三四回나 衝突되야 드듸여 罷業團員四名이 射殺되고 二名은 瀕死의 重傷을 입엇다

三土氏遂收容

十三日市谷刑務所에

【聯合東京電話】前鐵道大臣 三土忠造氏는 十三日午後五時二十分 드듸여 市谷刑務所에 收容되엿다

【電通東京電話】三土前鐵相에 對한 小原法相의 上奏에 對하야 天皇陛下께압서는 御勅許를 내리섯슴으로 檢事局에서는 直時起訴手續을 終了하는 同時에 午後四時 同氏를 豫審에 廻付하야 兩角豫審判事의 拘留訊問을 바덧는데 이에 압서 午後三時四十五分 長尾檢事 吉田豫審判事의 一行은 自動車로 麻布 廣尾町의 三土氏邸에 일으러 嚴重한 家宅搜索을 하야 同邸로부터 重要書類를 押收하고 午後四時五十分 裁判所에 歸還하엿다

寫眞班避하면서 三土氏市谷刑務所에

【電通東京電話】豫審廷에 廻附되여 兩角豫審判事의 拘留訊問을 바든 三土氏는 드듸여 十三日午後五時二十五分 刑務所에 收容되엿다 司法當局에서는 新聞社의 寫眞班을 追放코저 警視廳으로부터 新選組의 一隊가 出動하야 寫眞班을 追放中 三土前鐵相은 護送自動車로 市谷刑務所에 護送收容되엿다

三土氏收容에 對한 民政黨의 觀測

【電通東京電話】三土鐵相의 起訴에 關하야 民政黨에서는 如左히 말한다

(寫眞은 三土氏)

事件이 極히 重大하다고 또 眞相이 判明치 안한즉 批評할 수는 업스나 三土氏가 湮滅하엿다고 傳하는 證據材料를 整頓하면 同氏는 有罪로 될는지 엇절는지 자못 困難한 問題이다 그러나 萬若 同氏가 無罪로 되면 一變하야 政治上의 重大問題化할 念慮가 잇다

現在案作成時 發言權封鎖

關東廳員憤起의理由

【大連十三日發聯合】「在滿機構改革內閣修正案絶對反對、拓務案死守」의 스로간을 걸고 憤起한 關東廳管下警察、通信、民政署、土木、敎育、病院等各機關의 數는 벌서 五十을 超過하엿스며 地域的으로는 旅順 大連 金州 普蘭店 瓦房店 大石橋 奉天 營口 新京 安東等 滿鐵附屬地全地域에 及하엿는데 今明日中에는 管下全部署에 미칠 것으로 觀測된다 이러하야 關東廳下一萬五千名의 職員은 拓務案의 全面的擁護에 完全히 具體化되는 날을 期하야 最後의 決意를 斷行하고 全廳員一萬五千의 總辭職、即 總罷業에 들어갈 것이 必須의 形勢가 되엿다 關東廳職員이 이가티 非常手段에 出하도록 激化한 動機는

一、機構改革現地案作成時에 關東廳을 除外하고 拓務省의 機會를 封鎖한 것

二、本改革問題가 具體化될 때 現地各都市에 잇는 民間의 拓務案支持、他案反對의 運動을 關東廳의 使嗾에 依한 것이라 하야 이를 彈壓하고 現地에서 改革案에 關한 論議를 禁하야 拓務案을 不利케 할 方法을 採用한 것

三、關東廳의 總務長官을 中心하는 것과 가튼 言動을 中央에서 放送하야 現地의 與論을 惡化시키고 西尾中將의 入京時의 談話는 最近關東軍當局이 放送한 것 等에 잇는 이를 더욱 刺戟하야 遂히 爆發케 한 것이다 이러하야 各地一齊히 蹶起하게 된 것이다 關東廳全職員의 心境은 軍部或은 外務方面이 實力을 가지고 無理히 拓務案을 打倒하고 自案의 達成을 企圖한 이상 一萬五千의 我等은 最後의 決意를 하야 合法的 對抗手段인 總辭職으로써 此에 對抗할 수 밧게는 업다 하야 涉察、內務、財務、遞信의 各局長을 비롯하야 各課署長은 모다 牢固한 決意를 하고 잇스며 一般職員들도 關東廳三十年의 歷史의 終末과 其運命을 압두고 가지고 잇슴으로 反射的으로 彼等의 決意의 强力化하면 軍部가 如何한 强力으로 斷行한다 하야도 이 以上 强力的으로 斷行하면 容易치 안흔 事態가 發生하야 未曾有의 政治的 大混亂이 惹起될 不安이 잇다 萬有餘의 警察官、遞信局員、民政署員、學校敎員의 一齊 總辭職行爲는 大陸에서 日本帝國의 行動을 一時的으로 全然停止하는 結果를 惹起하고 局部的으로 政治的 모라토리움을 施行하는 奇現象을 招來하리라고 關東廳與一萬의 指揮者인 局課長主任級의 態度는 中央의 機構改革問題의 推移如何와 함께 多大한 注目을 끌고 잇다

三土氏起訴에 各方面同情多大

【東京電話聯合】中島元商相에 關聯된 某事件에 關하야 三土前鐵相은 起訴키로 決定되엿는데 氏가 政界에서 比較的 人格者로 알닌 까닭에 同情者가 만히 잇는 法務官가튼 이는 三土氏로부터 事件에 關한 說明을 聽取한 後 假證罪가 成立될 것이 아니라는 見解로부터 起訴되여 公判될 境遇에는 顧問官을 辭任하고 辯護를 擔當하겟다는 風聞도 傳하야 三土氏의 無罪를 確信하는 이도 잇서 起訴後 如何히 進展될지는 各方面으로부터 注目을 끌고 잇다

「法의威信을爲해抗爭」

無에서有는안난다」

三土氏心境을말해

【東京電話聯合】十三日朝六時 召喚된 三土前鐵相은 中島元商相等에 關한 某事件에 關聯하야 頑强히 不認하엿슴으로 그여히 起訴는 未免하고 今日中에 市谷刑務所에 收容될 模樣이다 三土氏는 如左히 心境을 말하엿다 今日 召喚에 압서 余에 限하야 某事件에 對하야 조곰도 疑惑을 바들 일은 斷然업다 大濱아모가 무어라든지 업는 일은 업는 것인즉 업는 일을 잇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큰 虛言이 될 것이다 余는 事實을 明確히 한데도 不拘코 도리허 이를 虛僞라고 하야 處刑을 한다고 하면 엇절 수 업다 그런 境遇는 몇 年이나 몇 日까지 敢히 明確히 하여 온 秋毫도 虛僞가 업는 事實을 明確히 하야 끗까지 法의 威信을 爲하야 司法權을 廓淸키 爲하야 最後까지 勇敢히 싸울 作定이다

九月十八日 國難三周年紀念

國府에서抗日宣傳

【電通上海十二日發】國民政府는 十三日附로 全國各機關에 九月十八日 國難三周年紀念電報를 通遞하얏다고 그 內容은 如左하다 九月十八日은 全國의 宴會歌舞樂을 停止하고 各地의 警察機關團體學校等은 各各記念集會를 開하고 又各會代表大會를 招集하야 國恥雪辱을 期誓하는 同時에 殉難將士의 冥福을 祈하고 各家商店에서는 午前十一時부터 五分間 일을 쉬고 默禱하라 고 하는 것으로 大大的 抗日데모가 行케 될 모양이다

中國이實施하면 日本은實力阻止

水路案內問題重大化

【電通南京十二日發】有吉公使는 十一日 汪精衛氏와 會見하고 今月末에 實行될 國民政府의 水先案內權의 一方的回收에 關하야 强硬히 反對意見을 述하고 新協定을 十月一日부터 實施한다면 日本은 斷乎阻止하는 態度를 取할 決意를 傳한바 汪氏는 이에 對하야 國民政府는 반드시 日本의 考慮를 促하고 십다 또 協定撤回或은 延期할 意思는 업다고 日本의 好意를 一蹴하엿슴으로 昨日의 會見에 잇서 水先案內權에 關하야는 何等의 成果도 업시 決裂되엿다 一般의 觀測에 依하면 中國이 强硬한 態度를 取하는 것은 最近 英國其他가 讓步的態度를 表示하야 이 問題의 早急解決을 希望하엿기에 日本으로서는 同問題에 對하야 讓步할 餘地가 업고 新協定을 各國의 態度如何에 不拘하고 中國이 一方的으로 實施한다면 日本은 實力行使에 依하야 이것을 阻止할 것으로 問題는 漸漸重大化되여 잇다 자못 그 推移는 注視되여 잇다

孫科氏上海着

今明中南京으로

【電通上海十二日發】避暑次로 호놀루루에 赴하야 루스벨트米大統領과 會見하고 米中關係의 緊密化를 圖하려하엿스나 그 目的을 達치 못한 立法院長 孫科氏는 十二日早朝 當地入港의 엠프레스•오프•재팬號로 歸國하야 午前八時 上海市長 吳鐵城氏의 出迎으로 上陸하야 私邸에 向하엿다 今明日中에 南京으로 赴할 豫定이다

발틱沿岸三國間 協定案正式調印

互相援助親善이要點

【쥬네브十二日發聯合】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三國代表는 十二日午後四時半 聯盟事務局에서 발틱海沿岸三國協定案에 正式調印을 終了하엿다 右協定의 骨子는 左와 如하다

一、三國에 關한 共通的外交問題에 關하야 同一行動을 取하야 相互援助할 것

一、三國外相은 定期로 會合을 開催할 것

一、締約國間에 對立을 招來할 虞慮가 잇는 諸懸案의 解消에 努力할 것

一、三國政府는 將來何等國際協定締約에 調印할 時에는 相互聯絡할 것

忠武遺跡 (四)

一鑑海萬朶島

巡閱留陣의史蹟地

天龍丸中 安在鴻

十五日午前九時 石顚은 一行을 떠나 內藏寺行을 하시고 爲堂과 나는 麗水의 西平楼橋에서 天龍丸의 船客이 되어 木浦行을 한다 群山直行은 업는 까닭이다 名山勝區를 두루 밟고 또 海上으로 一遍航한다는 것이 이미 塵世의 勝事려든 하물며 이번에는 忠武遺蹟을 되돌아가는 것이다 明朗한 날임에 氣分조차 淸爽하여 젓다 大偉人의 遺風餘烈은 血性人으로 술푸게도 하고 또 깃부게도 하는 것이다 어제 大捷碑閣에서 蒼古한 碑文들의 회미한 글을 읽어 感激이 겨운 곳에 눈물을 돌엇드니 海運樓의 엽 灣曲에서 몸을 날려 水浴에 들은 도라엔 고깃저 드리치는 물고개에조차 몸에 다허 公의 溫情을 늣겨 웁게 하니 偉大한 公의 精靈은 形을 依하야 存치 안코 死를 딸어 업서짐이 아니어서 오늘에도 悠然蕩蕩하게 우리에게 臨하는 것이다 壬辰四月十六日 釜山陷落의 飛報는 左水營에 들어왓다 公은 밧비 諸將을 불럿다 本營에 모히어 出戰의 議를 열엇슬 때 만흔 사람들은 本道의 要害를 직히자고 主張하는데 홀로 軍官 宋希立은 敢言하엿다

『大軍이 지경을 굴련 그 勢가 長驅하는데 앉저서 외로운 城을 직히면 혼저 보전될 理가 엽고 나아가 싸워서 다행하의이면 敵氣를 걱글 것이오 不幸戰死하여도 人臣된 義理에 北그러이 업슴만 갓지 못합니다。』

鹿島萬戶 鄭運은 일어섯다

『人臣平日에 은혜를 밧고 祿을 먹다가 이런 때에 죽기를 본밧지 안코 敢히 안저서 보랴고 하는가?』

公은 매우 깃벗섯다 소리를 가다듬어

『저의 形勢 鴟張하야 國家가 岌岌하니 어찌 他道의 將兵에게 매밀고 물러가 제지경만 직히랴 내 試問한 것은 아직 諸將의 뜻을 보려한 것이니 오늘의 일은 오속 나아가 싸울뿐이라 敢히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者이면 버히리라!』

이것은 坐議室의 軍事會議에서 士氣를 鼓舞하고 出戰策을 決裁한 것이다 動員이 急速히 進行되어 二十二日辛亥에는 斥候除가 나가는데 軍官 裵應祿은 折甲島에 가고 宋日成은 金鰲島에 가고 李景福等은 斗山島에 가서 敵蹤을 探하엿다 折甲島는 東으로 南海界에 잇고 金鰲斗山은 바로 突山의 밧게 잇다 五月一日 舟師가 水營의 압바다에 雲集하야 軍令을 기다리는데 公은 鎭海樓에 나아가 안저 將佐를 불러 方略을 주고 四日새벽에는 모든 길로 모아들은 情報에 드듸어 莊烈한 出發을 한 것이다 압바다는 이 바다! 우리는 지금 압바다에 떠다마는 坐議室은 헐린지 오래고 鎭海樓는 [illegible]이나 절그러졋고 水師營은 公普校의 學童들이 無心히 놀고만 지고 잇는 것이다 우리 배는 고동소리 길게 질러 떠남을 알리는데 어제 밤에 두어 時間 懇談을 하든 三友局의 有志들은 困氣가 만혀든양 文爲氏가 時間을 대어 餞送하왓다 배 사람 머리에 섯다 경렬다여기를 조치는 港口의 情緒가 한창 무르녹는 판에 배 사람 머리는 벌서 將軍섬의 겨르도 푸른 물을 히게 쫏게며 西南角으로 내닷는 다결저 퍼지는 물거울을 보며 작(小)고도 곱게 놓여 노힌 섬과 섬들의 사이를 고매어 지나는데 海村 두세 집의 호젓하게 사는 光景을 찾찾으보며 잇는 동안 힌돗을 깨끗하게 하나식 둘식 或 세식 달은 白衣人의 漁船들이 저 압해 十數隻 떠 잇서서 마치 못(池)우에 고히 뜬 떨기 힌 나비처럼 우리를 마중하야 多情하다 한 三十分 달어 낫다 돌아보매 鍾鼓山 報船들은 벌서 突山島의 저쪽 松島途하는 줄 혼저 뎌 연돈 앗가의 帆의 기슭으로 숨금숨금 밀고 가며 숨기어 다시 볼 수 업고 나의 배와 東잇다 아마 말도 업시 나를 저 바리「딴 길로만 달어나는 그들을 원동으로 바라보는 때에 나의 가슴 기운 겨울도 룩을 움하다 人生의 나그네는 언제나 자진 離別에서 다기기도 하고 眞境에 접어드는 지름길도 엇는 것이다 아아 碧海千里 나는 지금 中流에 떳다.

西으로 바라보니 白也島의 鷲峯 적 솟는 三峯은 金芙蓉을 하늘에 버동긴 듯 南으로 열분 水彩蕭와 가티 ―꿈가티 아름픗한 曲線美의 連峯은 公의 平日 巡閱과 留陣의 場所로 되든 介也島(蓋島) 諸島와 自烽島等等의 各 섬이오 海上十洲가 여긔도 한곳인듯 더욱 가매 찌(蒸)는 날에 선들바람이 돌고 漠漠는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등성등서 떳다 船室에 들어 차마시고 新聞보고 하는 동안 船窓에 비뒷(落)는 소리 우수수 울리기로 다시 甲板우에 나서 보니 거울가티 깨끗하고 기름가티 부드럽든 水面이 翡翠 섞거 치럼 아롱담고 김자락처럼 굽일고 출렁거리는데 數업시 떨어지는 비人방울에 여엽비 숨엽대는 光景이란 이로 形言할 수 업고 白也島의 香을 목을 빠저 上花島 下花島 위닭섬 여래닭섬 이리승 배암섬 가마섬 中點藏의 數반 흐르고 작은 섬이 남실남실 다 빗겨나고 南으로 滿天一碧 望無涯의 大自然을 열어노하 아득하고 아뭇대는 雲雨는 西에서 興陽半島에 엉키엇다 여긔는 보돌바다라고 한다

(寫眞은 忠武公廟)

正租貯藏制度를 恒久的方策으로決定

【電通東京電話】農林省서는 米穀恒久對策으로서 昨年度부터 正租貯藏을 實施하고 잇는데 昨年은 六百萬石을 目標로 五百二十一萬石의 貯藏에 成功하고 最近米價高에 乘하야 此의 解除로 相當한 實効를 내엿다 딸아서 그 實績에 鑑하야 今後 正租貯藏制度를 恒久的方策으로 年年實行하기로 方針을 內定하엿다 그리고 來年度의 正租貯藏計劃方針은

一、貯藏數量 五百萬石內外의 相當한 數量을 目標할 것

一、貯藏補助金 倉庫建設費等은 米穀對策費로서 一括하야 追加豫算에 計上할 것이나 于先 今年豫算의 剩餘金 約六百萬圓으로 新米出廻期부터 貯藏을 開始할 것

一、貯藏解除에 對하야는 米價가 一定價格에 騰貴한 境遇에는 强制解除를 行할 것 等等이다

夕刊後의市況 (十三日)

朝取短期

	後引	高値	低値
朝取	二六六〇	二六六〇	二六五〇
朝新			
鐘新			
大新	八六二〇	八六二〇	八六〇〇
東新	一五四〇〇	一五四二〇	一五〇六〇
日産	二三六〇	二四〇〇	二二一〇
帝人		一六〇五〇	一六〇五〇
日레		六七五〇	六五五〇
日魯			
滿新			
日毛			
安取			
拓新		九五〇	九〇〇
商係			

大阪短期

	後引	高値	低値
大新	八五四〇	八五三〇	七九六〇
鐘新	一三二五〇	一三一八〇	一二八六〇
日産	二二四〇	二二四〇	二二〇〇

東京短期

	大引	高値	低値
東新	一二五八〇	一二五四〇	一二三九八
日毛	二七七〇	二八五〇	二七七〇
滿新	一六二五〇	一六二九〇	一五九七〇
帝人	九四七〇	九五〇〇	九一八〇
日레	六六九〇	六七七〇	六五六〇

大阪短期(東新)

	大引	高値	低値
東新	一三三九〇	一三四〇〇	一三九八〇

大阪短期 氣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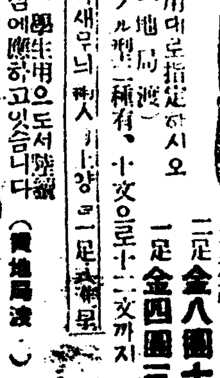
大新	一八三五〇(不低)
鐘新	一二二〇〇(五〇高)
日産	一一四五〇(四〇高)
東新	一三四五〇(七〇高)

橫濱生系後引 當限 一四八〇 先限 一四五五〇

綿井人絹後引 當限 九〇六〇 先限 八六六〇

各地期米 △下關 後止 二六、〇三

今日로마지막
市價의半額大特價提供
(注意)
運賃은 貴地局又는驛까지 會社서 支拂하오。
最近의 郵便局又는驛을 指定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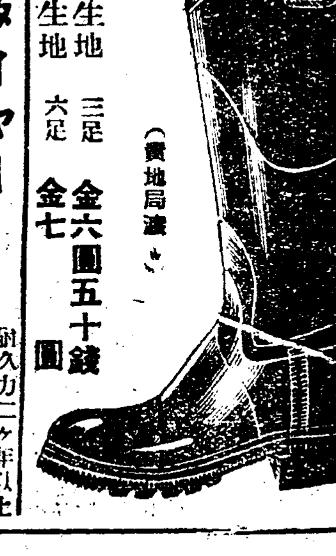
高級純手製靴
最新 レフチン型
此靴는 북마음에 맛는品、他店에서 안되는 底革을 手縫하야 中皮를 特히 精選하는 底革은 耐久力充分한 本革을 他品追從不許의 優良品

黑編上 上皮中敷付 二足 金九圓二十錢 一足 金四圓八十錢
黑短靴 二足 金八圓十五錢 一足 金四圓三十錢
文數所用대로 指定하시오 (貴地局渡)
フレンチ型과 ブル型 二種有、十文으로 十二文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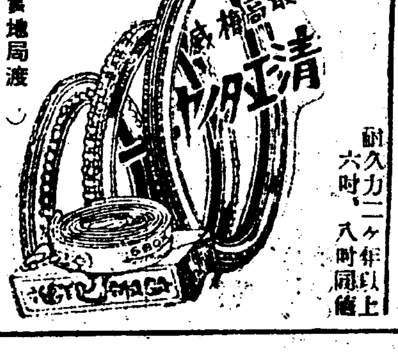
青年訓練用靴
堅牢無比 耐久二ケ年以上 特別奉仕
이 洋靴의 堅固함은 耐久皮底는 無比로 軍隊式의 鐵釘을 박은 訓練靴 一足마다 實用양말 一足無代進呈

途隊、青訓、學生用으로서 特히 注文을 나리심에 應하고 잇슴니다 (貴地局渡)
新案用 鐵黑編上靴 上皮中敷付 特價 一足 金四圓十錢 二足 金七圓八十錢

小供用豆長靴

(貴地局渡) 特品 裏毛付 エナメル塗 十足 金七圓五十錢 七文、七文半

紳士用ゴム長靴

アメ底 大人長靴厚生地 三足 金六圓五十錢
小人長靴厚生地 六足 金七圓
(貴地局渡) 耐久力二ヶ年以上 六吋、八吋同値

自轉車タイヤー 景品付賣出
A號 一組二本 金四圓 二組 金七圓四十錢 他 高級中袋一組無代進呈
特A號 一組二本 金四圓四十錢 二組 金八圓二十錢 他 高級中袋一組無代進呈
A號タイヤーは二〇糸八本十三回부합
特A號タイヤーは二〇糸九本十三回부합

(貴地局渡)

合資會社 アサヒタビ工業所
日ノ出松地下足袋

(貴地局又는驛渡)
特製地下足袋二萬足限 速便勝利
朝鮮日報切取注文人에 限하야 左記大特價提供
特製地下タビ 十足 金六圓 百足木箱入 一梱 金五十四圓
取良地下タビ 十足 金五圓三十錢 百足木箱入 一梱 金四十七圓
絹宣傳廣進呈
注文 便紙로 申込次第 代金引換으로 出荷함 品質耐久保險必히 地方小賣價의 半價以下、不合時는 換品返金自由、絶對로 걱정은 안끼침
名古屋市東區千種町 合資會社 加藤ゴム營業所 電話東四八二九番 振替名古屋一八九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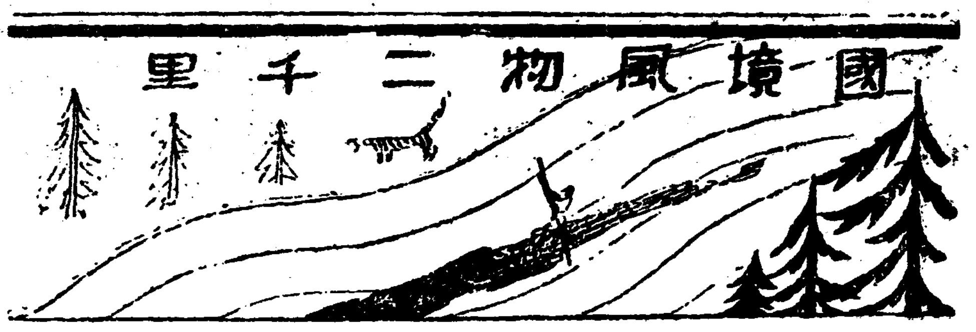
江마즌편皇城벌은 大高句麗都邑地

當年의빗난文化、而今에安在!

筏夫노래만嫋嫋不絕

李相昊記 (九)

國境風物二千里



팔백이십사역——지금까지헤메고 다난곳은 국경의문턱과뜰알계서 어정거린세움이요 이제부터가 만수(滿洲)벌에서 수수밧매고잇는사람과 조선땅언덕에서 손짓을할수잇는 글자그대로의 국경 자동차에 몸을 부치고독로강(禿魯江)푸른줄기를 손놉내미러어루만질듯이정답게끼고 달린지백여리。 사렬(四列)오렬종대(縱隊)를지어 달리든 산맥들을하목으로사정업시잘러짜거세우듯한 절벽밋흐로담청색(淡靑色)빗는물줄기가 우리편언덕을 부둥켜안은채로 말업시감돌고잇다。

여기가 압록강。

게딱지처럼부러서 맑은강언덕을 더럽히고잇는 동리를가르처만포진(滿浦鎭)。

압록강! 젊은조선이힘찬팔뚝을휘내든옛날에는이강줄기가 나러꾸미를놓고 나가든 대동맥(大動脈)이되여 이강을천리 언덕에는 고구려(高句麗)문화의 눈부시든 잔채가 버러젓든터전이엿건만 늙은조선이 팡문이를 빼여앗바으로 도라안즌 이서절에는이물줄기가 힘업는정맥(靜脈)이되여 떼목(筏)내리우는벌부(筏夫)들의 구슬픈 노래속에서나 차저보게되는동시에 수수밧고랑속으로 기여다니는 마적떼들의 화승총 연기와함께 희미해지고말엇다。

여기서바로 건너다뵈는 「황성(皇城)벌」(通化縣輯安縣通溝)은 고구려제십구세영주 광개토왕(廣開土王)의도읍터다。 동으로 강원도 서으로 요하(遼河)=山海關附近=북으로 흑룡강(黑龍江) 남으로 한강(漢江)을 어림으로하야 배판하엿든대고구려의 한때심장—— 이곳에는 아즉도 그님금의 뼈를모셔둔능(陵)이잇고 그님금의 행적을색인 돌비가 풀떨기속에파무치고 묵은의끼미테 깔리워겟지마는 빗난그시절을자랑하면서 이강물줄기를 직히고잇다。

○……○

여기서물ㅅ길로신의주까지내려가는때는 시간도약속도 예정도업시 물우뒤치는대로 몸을맛겨흐르는 떼목놓을비롯하야 황토빗돗을눈이덥고 식권는 몸뗑이를궁을거리고내려가는「쩡크」배와 이즈음와서 이강물우에 「재빈—」란별명을듯고잇는 「푸로페라」배가잇다。불행히한가한몸이못된기자는 속력은빠르나 운치와풍정파는 동전의「푸로페라」선을 잡어타기로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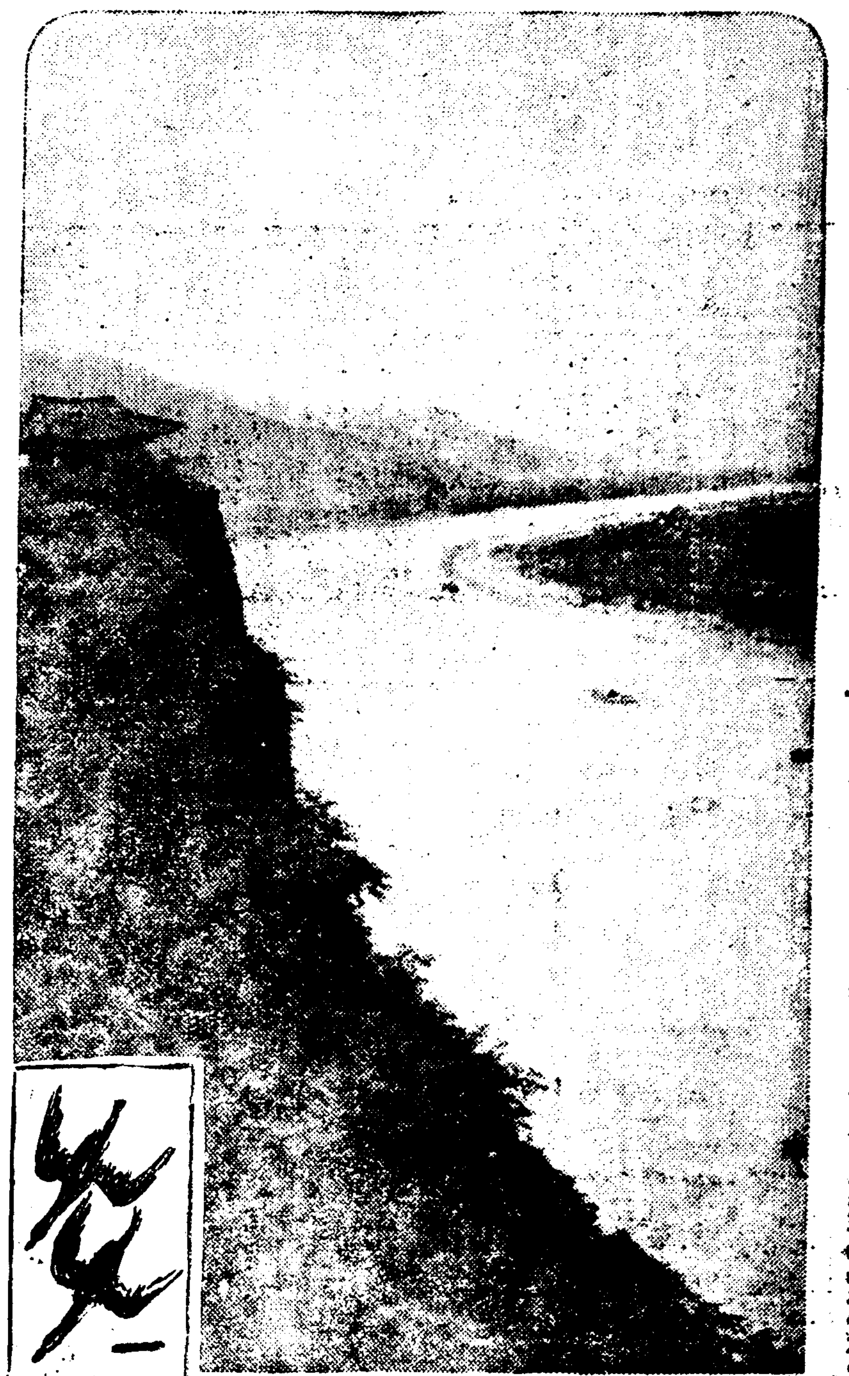
팔월이십오일 새벽다섯시반—아직도 어둠사리가 거치지못한강둑에는 허밋옷을자끈으로 졸려매고장총(長銃)권총사별로최대금 무장을한순사몃명이 강언덕에세운 원두막가튼 간시소(監視所)에서 강건너수수밧을향하야 방금도·총질을시작할듯이 신경을 날카롭게하고총뿌리로원(圓)을그리며 건너고엿다。익크! 백두산도 압록강도 떼목도 수수밧도 ……국경이아니라 이것이국경이로구나하는생각이 번개가치 머리를친다。

「나는배—ㅅ잡로 신의주까지가는사람이요」하는군호를 보이듯이 큰거청을한번하야 공여히긴장된 가슴을내리우고 간시소압흘지나「푸로페라」선 선창에 까지나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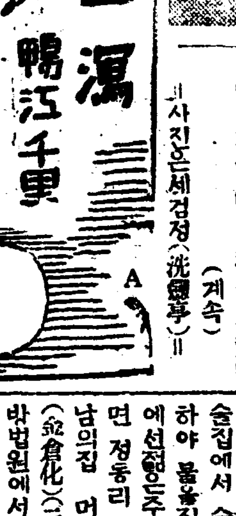
○……○

선창은 바로수백척절벽이 낭떠러지우에 강물을 내려다보고서잇는 강계땅의명소인세검정(洗劍亭)밋치다。 이정자는 이백여년전에 이변경을몹시 괴롭게굴든 호적(胡賊)을처물리친 박남여(朴南輿)장군의개선긔념각(凱旋記念閣)。세검정이란 일홈는 이곳뿐만아니라 조선안도처에 이일홈가진정자가 만히잇지마는 칼을뽑는정자는업고 칼을씨슨정자만 자랑삼어 남아잇는것이 기자의구미에 못맛당스러워서 한번흘겨처다본후는 배—ㅅ장에 올랏다

(계속)



=사진은세검정(洗劍亭)=



梁瑞鳳等一派 歸順勸告를不應

機關銃갓고各地에部下配置

根據는通化縣外岔溝

【新義州】 십이일모처착정보에 의하면 조선○○군총사령량서봉(梁瑞鳳)은 지난 십일만주국동화현강산이도구(崗山二道溝)에 본부를두고 최근 귀순권고(歸順勸告)에대하야 전혀응할수업다는 내용의 선전비라를 현경일대(縣境一帶)에 산포하고 토벌대와대치코저 제일중대(약삼십여명)는동화현강전자(通化縣江甸子)에 제이중대(약삼십명)는즙안현제륙구딱왕조부근(輯安縣第六區八王朝附近)에 제삼중대(약사십명)는동화현강산두구(通化縣崗山頭溝)에 배치하고 부사령한검추(韓劍秋)는부하십여명을 거느리고 각중대를지휘독전(督戰)하는중인데 부사령이거느린 일대는 긔관총까지배치하야 세력이상당하다는바 목하 본계호(本溪湖)기타로부터수비대가 출동중이라한다

동화현외차구(通化縣外岔溝)방면일대도 량서봉 의세력이비상히 행창하야 일만군대토벌을항거하는 의방하는일방 주민들에의무금(義務金)과군량을징발하는중인데 지난십일에는 주만사등에대한 통첩을 발한일도잇다 또십이일모처착정보에 의하면환인현삼송배(桓仁縣杉松背)에 웅거하얏든약이백명의○○군이백여명은 환인현 장춘구(長春溝)로이동하얏다한다

沿海州出漁에 朝鮮側積極進出

二十五萬圓의新規豫算計上

保護船을建造할터

총독부 수산과에서는 조선어업자중의 하나로 연해주(沿海州)방면에 원양어업의진출을장려하기위하야 명년도예산에 그보조금과 지도비를 요구하엿든바 아번예산사정에 이십오만원이 용인되엿슴으로 이것을가지고 이백오십돈급의 「디—젤」긔관을가진 지도보호선을 한척건조하야 연해주방면에 출어(出漁)하는원양어업자의 보호지도에당하게되엿다는데 현재 연해주의 어업관계는 일쏘(日蘇)어업문제때문에매우복잡하여항상말썽거리가 되어잇는데에 다시조선측의진출로인하야 압호로는더욱어업권을 중심으로 맹렬한경쟁이 전개될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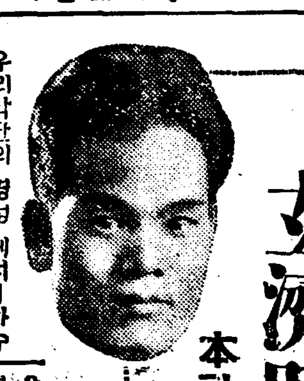
土兵討伐中에 長銃廿挺被奪

【新義州】 안동현경찰대제오분대(分隊)약이십이명은 현하 반만군토벌에 출동중십일방아흠시경 안동현 제륙구대하회(大荊淮)부근에서대룡(大龍)의 인솔한약사십명의 토병과충돌하야 교전수시간후 경찰대는 [illegible]

가을樂壇最高頂 玄濟明氏獨唱會

本社學藝部後援、十月五日에

歸國以後로第二次



우리악단의 명성 테너—가수현제명(玄濟明)씨는 오는 십월오일밤 시내공회당에서 연희전문학교주최와 본사 학예부후원으로 독창회를열기로되엿다 현제명씨는 우리악단에서 가장명성이놉흔 명가수로 그무드럽고 우렁찬 성음이며 창법의 아름다움은 경향의만흔팬들의 창찬을만히밧든터이다 씨는 미국서돌아와서 독창회를열고 그후는여러가지음악회마다 무든히출연은하엿스나 독창회를 열기는 그후처음이다 그동안씨는 연희전문의 음악부원을 지도하는한편으로 만흔연구를싸어 오다가 이번주기악단의 선두에나서 독창회를 열게된것은 전악단적으로 깃버할바이다 당야에는종래우리악단에서 흔히들어보지 못하든노래로 관중압헤나타날것이니 이번독창회는 전에못보든 성황을 일우울것으로 기대된다

麻藥中毒者豫防 協會는月末에發會式

直時로豫防事業에着手할豫定

긔보=『모르히네』환자의퇴치책으로 조선마약중독 예방협회(朝鮮麻藥中毒豫防協會)를조직하고저 십이일경무국에서 위생당국자가회합하야협의한결과협회를조직하기로하되협회의사업은 라(癩)예방협회와가튼성질의것이아니고 순전히 선전긔관으로서 『모르히네』중독자의 민중위생상풍교상또는치안상끼치는악영향을업새기위하야협회에서는 위생당국과협력하야 중독자의 선도감독과사회교회의선전사업을 할터이며 일반에게서긔부금을모아 긔병환자 대책가튼 사업은하자안는다한다 그리고 협회는널리 민간회원을망라하야 조직할터인데 이달이십일전후에는 발회식을 거행하고곳선전사업에착수하리라한다

無産兒童百八十名 衣類百餘點募捐

鷺梁津鷺青學院壯擧

【始興】 시외로량진(鷺梁津)鷺青學院)는 현재 일백팔십여명의 무산아동을 수용하고 사오명의남녀청년들이 가사를돌아보지안코 자비를던저 가면서 보통과사년제과목을 열심으로 교수하여오는중인대 금반삼남수해로 인하야 만흔리재동포가 닙을것먹을것이 업시가도에 방황한다는 교사의강화를들은아동일동은한금마다회의를연결과 현금류원오십전과 의류일백칠십점을수합하게되어이것을본사시흥지국(始興支局)을경유하야 본사로탁송하엿는데 가세가빈한하야남과갓치정규의교육을밧지못하고종닌눈물부벼가며배워야살겟다고오직장래의희

北平共黨派遣員은 江原道出生金某

治安攪亂의重大使命띄고潛入

平北警察部서猛取調

【新義州支局特電】 요지음평북경찰부에는 해외로부터 민파주의 흑은공산주의 직접행동과를이 무리를가지고 조선으로드러온다는 정보가 바ㅅ발가티날러드라와서 이상히 긴장되어잇는이때에 십이일오후 세시쯤에 경의선 남행렬차『히까리』안에서 평북이동경찰관은 중국에서 드러오는 수상한 청년한명을붓잡아다가 방금 평북경찰부에검속해노코 엄중한 취조를하는중이다

그청년는 강원도(江原道)출생 김모(金某)(三○)로 중국락양(洛陽)에서 모종의 중대사명을띄고 조선으로 드러와중국공산당파견원으로 일즉이 상해(上海)에서 활동하든모의 부하로잇든 사람인데 일천구백삼십오、륙년의 위긔(危機)를 압두고 내외호응하야 조선안에서치안교란을 할목적으로 드러온것이라한다

貫鐵洞暴力團들 懲役四個月式

우미관(優美館)부근을근거로삼고 싸움팔아먹는 폭력단리헌구(李憲求)황성진(黃成振)차귀석(車貴石)원환산(元丸山)리복남(李福男)등다섯명은상해(傷害)죄로 십삼일경성지방법원 에서각각징역사개월의판결을바닷다 그들 다섯명은 지난오월상일오전두시쯤에 시내우미관압 왕관(王冠)『카페』에서그때마츰술을먹으려간시내신의동(新義洞)사는 삼익회사사장(三益會社)김밀수(金彌洙)씨에게 싸움을 걸어드듸여그를 뒷골목으로 끄을고나가서함부로차고따리고하야 전치이십오일의 중상을입혓다

新滿蒙社滿語講習

시내장곡천정(長谷川町)에잇는신만몽사(新滿蒙社)의부속만주어학원(滿洲語學院)에서는만주어의 권위자 강우림(姜宇霖)씨를 초빙하야다가 오는십오일부터개강한다고한다

남편업는사이 계집빼여팔아

남편이출타한사이에남의안해를간동하고 다시남편의 도장을훔처리혼수속을 한후에동거하든끄테 창가로팔어먹은 사실이탈로되어밀정경찰에고소를당한사나이가잇다시내초음정(初音町)오십삼번지수도암일(秀島岩一)은그의안해이든 삼영이도는(森永イト)와 수년전에 조선에건너와시내약초정(若草町)칠번지에서음식점 영업을하든중 소화칠년사월 전기수도가 전남(全南) 지방으로채권(債權)을팔러나간사이에시내욱정(旭町)일정목십일번지구일정칠(溝口政七)(四○)이 예취동안차저 다니다가 삼영이도와 간통을하엿고 동침할경에는 역시남편이업는틈을 타서 수도의 인감을 위조하여 가지고 그원적지인 장기(長崎)에가서 리혼 수속을하엿다 그리하야 삼영이도를빼어가지고 나와저긔집에서 동거하든중 지난 팔월팔일경시내욱정 일정목 일백이십팔번지전중모(田中某)라는 소개업자에게 전차금이백원을밧고삼영이도를팔러먹엇다 이상의사실을들은 피해자수도는 룡산소관본정경찰서에 공문서위조、사기간통죄등으로고소를제기하엿다

酒母薄待맛고 분푸리로放火

술집에서 술을팔지안는데 분개하야 몸을질러태워버리고 법정에선젊은주객—강원도이천군동면 정동리(伊川郡東面定洞里)남의집 머슴사리하든 김창화(金倉化)(二三)는 십삼일경성지방법원에서 방화(放火)죄로 의전(依田)경사로부터 징역오년의 구형을 바덧다그는금년사월십사일밤에 동무두명과 함께그동리최음천(崔陰天)이라는젊은녀자가 경영하는 술집에술을사먹으려갓더니 최음천은 그의전부무릅우에누어잇스면서일어나지도안코 병이드럿다느니 술이가를 아즉내지못햇다느니 젊은사람들에게는 술을팔수업느니 하며술팔기를 거절하엿는데 그러고난뒤 얼마아되여 다른술꾼들에게는 술을 팔고가진야양을 부리고잇슴으로 그래도가미워서 분개한나머지에 그술집동에 몸을 노하버렷더니드듸여 그집한채와 그이웃집한채까지 두채나 태워버린것이라한다 피고는 법정에서는 사실을부인하엿다하나 판결은 오는 이십일에하기로되엿다

全朝鮮學生籠球第二日

強豪儆新을이기고 養正軍準決勝에

大東、中東、崇實、各勝

中央基督敎青年會主催의 第十回全朝鮮中等、專門籠球選手權大會第二日은 十三日午後二時三十分부터 鐘路YMCA室內코—트에서擧行한바 이날의戰績은다음과갓다(第一回戰)

大東53(28/25…6/7)13二高

【第一次】 大東商業對第二高普戰은 同日午後二時三十分부터 金振秀、金化泳兩氏審判아래開始、結局五十三對十三으로大東快勝하엿다

反後前	【二高】		【大東】	前後反
002	金善益	F	兪仁濬	12121
010	韓容淳		金昌植	000
022	李潤龍		金命壽	7121
120	李康勝	C	朴承益	420
102	成樂勝	G	金鍾河	001
100	李成勳			
000	金鍾河			
020	崔毅相		申海徹	221
376				25 18 4

中東97(30/67…14/6)20京實

【第二次】 昨年優勝校中東對京城實業戰은 同午後三時二十分부터 李惠逵、金振秀兩氏審判아래 開始한바 中東軍壓倒的優勢로 大勝하엿다

反後前	【京實】		【中東】	前後反
281	崔鳳浩	F	洪憲錫	641
020	金宇鎬		李河洪	040
400	朴聖基		申光浩	1122
			田亨鎬	021
444	玄哲鎬	C	金昌雲	17160
000	崔鍾星			
401	黃午知	G	朴東漢	1002
			金炳燮	021
400	李春康		李容濩	2300
18 14 6				67 30 7

崇中43(28/15…2/6)8徽文

【第三次】 關西의強豪崇中對徽文高普戰은 同日午後四時十六分부터 李惠逵、張 兩氏審判으로開始한바 結局四三對八로 崇中軍悠然히 勝하엿다

反後前	【徽文】		【崇中】	前後反
020	姜日東	F	吳壽哲	131
404	韓正武		張聖壽	020
			金光善	5142
100	金容武	C	張元國	222
200	閔泳夏	G	宋熙道	141
222	金善徹			
400	張聖權		吳重烈	631
13 2 6				15 28 7

養正20(8/12…4/8)12儆新

【第四次】 前日一勝者養正高普對儆新學校第二回戰은 同日午後五時十分부터 田盛鎬、張東旭兩氏審判으로開始한바 難兄難弟의接戰끄테 養正二勝하야準決勝戰에드러갓다

反後前	【儆新】		【養正】	前後反
140	崔春熙	F	金寧元	233
200	崔俊道		申宗燮	022
			鄭庚燮	153
331	崔滄龍	C	金景洙	204
000	李壽洪	G	韓世一	221
113	蔡允錫			
000	朴[illegible]		宋鐸燁	100
784				8 12 13

◇寫眞은◇ 連二年優勝한 第二高普水上軍

中等水上決勝 二高優勝

徽文은第二位

最後의覇權을決할 八百米릴레이 一種目을남기고 日沒로因하야 延期하엿든 朝鮮體育會、朝鮮水上競技協會 共同主催의第五回全朝鮮中等校水上對抗競技大會는昨十三日午後五時降雨를무릅쓰고 京城풀에서 決行하엿다當日풀의『콘디슌』은 水溫二十三度로 二高、徽文兩릴레이팀의 悲壯한爭覇戰은 가을비가 가저온寒氣와싸와가며展開되니 第二高普팀斷然리—드하야一着되여 總得點九二點을最高位로第二高普軍連二年優勝하니 徽文第三點의 差로制覇의꿈은 깨여지고마럿다 이리하야 朝鮮體育會常務理事金圭冕氏로부터 優勝한第二高普軍에게優勝旗와 밋메달을授與한後同五時四十分頃圓滿히閉幕되엿다

◇八百米릴레이決勝

▲1第二高普(金鍊、李友燕、吳振榮、李燦鎬)十二分廿六秒一

▲2徽文高普(金文玉、李鍾相、金介錫、李明燮)十三分十二秒二

今日의運動

▲籠球=全朝鮮學生籠球大會第三日=海州高普…京畿商(午後二時半) 中東…大東(同三時廿分) 平壤崇中…第一高普(同四時十分) 延專…法專(同五時) 世醫專…大學豫科(同五時五十分)

育兒의十二個月 第九개月

(標語) 크게든든히 强코怜悧케

晩夏부터初秋의育兒 特히重大한離乳期의注意

大阪支部病院小兒科長大久保博士는엘에도의適用에對하야、자조新聞紙上에도發表되고小兒의消化不良에對한治療에는勿論離乳期의食餌로서實用推奨하고잇습니다。

晝間은아직殘暑가强하나、朝夕은生冷하고夜間에는生冷함으로衣服調節에써注意할必要가잇습니다。感氣를안걸니게하고 父母님의 고마움은如何間마하히옷을입핀다고하나넘우땀이만하지안나도록注意하시요。

갓난애의皮膚는濕潤의調節機能이不充分함으로、一日中이라도冷暑의變化에依하야옷의厚薄을調節하지안흐면안됩니다。

乳兒의食慾이旺盛하야잘못하면過食이되기쉽습니다。

絕對安全한 離乳法은

갓난애의發育과、健康狀態에應하야離乳食餌案配를專門相談所에서맨듬일것입니다。

左揭表는健康乳兒의標準食餌例나이에一日一回乃至二回에레도溶液(十一%)二〇〇瓦를、母乳又는ラクトーゲン에代用한다가장安全합니다日本赤十字社

九個月乳兒離乳食餌의標準例

時刻	母乳榮養兒의境遇	人工榮養兒의境遇	母乳又는ラクトーゲン外에그외가리주는食餌
朝(六時頃)	母乳	ラクトーゲン二〇〇	우에하—스又는衛生보로 一個
午前(十時頃)	母乳부터漸漸ラクトーゲン에	ラクトーゲン二〇〇	비빔(밥알이수물한것) 五〇까지
午後(二時頃)	ラクトーゲン漸增一五〇까지	ラクトーゲン二〇〇	汁二〇 비스켓트 漸增二個까지
夕(六時頃)	母乳에서漸次ラクトーゲン에	ラクトーゲン二〇〇	粥식 漸增五〇까지
夜(十時頃)	母乳	ラクトーゲン二〇〇	無

【註】八個月의表를꼭參照하시요 漸增—이라함은最初少量으로漸漸量의增加식힘을意味함ラクトーゲン—은二四瓦을二〇〇瓦의미음又는野菜스—프에탄것

비빔……미음四勺에미음湯을짜고남은밥알을茶숟가락에一、二杯쯤너흔것。 이미음을맨들時감자、人蔘、무、蕪菁의野菜나鰹節等을가치너어끄리는것이理想입니다。

粥식……食빵十瓦(석양갑大)ラクトーゲン탄것又는牛乳一〇〇瓦砂糖茶匙一杯(五瓦位)食鹽極少量을잘끌여맨듬니다。

菓子……빼스켓트、우에하—스等菓子는、乳兒에適當한良質의것을選擇하지안흐면안됩니다。ラクトーゲン산빵(빼스켓트)ラクトーゲン우에하스等은小兒科專門大家의推奬한理想的品입니다。

ラクトーゲン試用罐(일곱자분)……切……取……線

發育과注意

本邦幼兒標準發育表

滿九個月	男兒	女兒
體重	八·四四瓩(二·二五貫)	七·九七瓩(二·一三貫)
身長	六九·四糎(二·二九尺)	六八·四糎(二·二六尺)
胸圍	四四·六糎	四三·四糎
頭圍	四四·一糎	四三·二糎

말이大端明瞭하게되고、밧차주면、조곰쯤서고、잡고설나하나손을끌어서無理로세우려하든지걸이지안토록、옷나가두개나고젓以外의食物에도눈을대고먹고자하며손에가진것을꼬입에넘으로注意。危險안된場所에서도相關업시기여다님으로마루에안떠러지도록。화로、바느질그릇其他危險한道具에注意하고、아기뵈인애에만맥김은危險。

進呈券 S9

本券과三錢切手와同封住所氏名明記封筒로三錢切手貼附左記에送附를乞함
◇切手貼附不足은局에서返送
◇本券은호자一枚에限함
大阪中央私書函三五號

▲第十個月次의育兒法은十月初本紙上에揭載함
▲第一個月부터八個月까지의育兒法은本新聞記入次第送呈함

ライトインキ

라이드잉크

2オンス入 スポイド付 正價30セン

滿足 이말은 ライト愛用家의 一致的批判!!!

(大瓶、小瓶各種……全國의文具店에잇슴)

本舗 東京 篠崎インキ製造株式會社

秋季京城大競馬會

九月 十五日(土) 十六日(日) 十七日(月) 十八日(火) 二十一日(金) 二十二日(土) 二十三日(日) 二十四日(祭) 開催

於 京城東大門外競馬場

社團法人 朝鮮競馬俱樂部

特望의名篇 九月十三日부터大封切!

朝鮮映畵社作 原作監督春史 七番通小事件 撮影……孫勇進 製作……李明雨

폭스社超特作 女性暴君 主演……에릭사린디—

폭스社特作全發聲 斷崖의砲火 監督 두이스킹그氏 조—지오브라이엔 구래아도래보—

次週大封切 世界大海戰悲壯劇 兒童映畵 少年探偵團

貫鐵洞 電光三九五 優美館

九月十二日낫부터 普通料金 日曜日祝祭日三回興行 斷行時間十一時三時七時半부터

와나社超豪華、壯絕巨篇 名匠나—반、르로이氏監督 아메리카、모쇼、팍 주어、헤리 루드誌會表

新感覺派異色映畵 골드·딕가—스

一九三四年度레뷰—映畵의總決算 從來의名篇『四十二番街』를凌駕하는豪壯版、와나社秘藏名優總出演 一流레뷰—團合同出演

漫畵人形劇 浦島太郎 全二卷

宿命秘話 와나社超特作(日本版) 大讀의人生 全九卷 알푸렛드·E·그린氏監督 따크라스、쥬니아氏主演

仁寺洞 電光二一五二 朝鮮劇場

엇다고한다

表面은青年會看板 裡面은共產運動

秘密結社「豊川志友會」公判

三年과二年役求刑

【海州】 표면단체풍천청년회(豊川靑年會)를간판속에 숨어그라면에서 푸락소운동을 전개하야 좌익서적을 비밀히구입하야 회원에게 탐독시커계급의식을 고취하는일방 푸로연극(演劇)을통하야 공산주의사상을 선전하고 소작쟁의등의 괴회를 엿보아 소작인등의 리익을대변하야싸우고 그것을 모면든토의식커농민을 획득하라는 동대활뭇을하든하생출신의인테리들로써 구성된비밀결사 세칭풍천지우회(豊川志友會)사건의관계자 송화출신의림표(林彪)(三)로종영(盧鍾泳)(三)등십명은지난오월삼구일 송화서의손에 검거되여 취조를맛다가 팔월오일전긔림표(林彪)등오명은 구속으로 정태균(鄭泰均)(三)등오명은불구속으로 해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여이래 치안유지법위반죄로 상전(上田)검사의 준렬한취조를 밧고잇든바 정태균(鄭泰均)(三)외 오명은 불기소로되고 림표등오명은 유죄로결정되여 지나십일일 해주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석천(石川)재판장주심과 상전(上田)검사의립회하에 개정되엿는데 개정벽두에 재판장으로부터 각피고의 주소서명 직업등을 입문적으로 무른후 립회검사의 준엄한론고와동시에 다음과가튼 구형이잇섯다한다

松禾郡吳澗面石灘里 林 彪(三) 懲役三年
松禾郡豐海面城下里 盧鍾泳(三) 二年六個月
同郡同面城上里 金碧城(三) 同二年
同郡同面城下里 金亨俊(三) 同二年
同郡栗里面穆浦里 洪亨益(三) 同二年

國境蹴球延期

【新義州支局通信】 오는십오륙량일간에 개최하려든 신의주긔자단(記者團)주최인국경축구대회(國境蹴球大會)는운동장관계로 연긔하게되엿다는데 긔일보다 이삼일후에 개최될뜻하다고한다

水害家庭兒童에 授業料를免除

大田第一普校에서

【大田】 대전제일보통학교에서는 과반수해를 당한곤궁한가정의 아동들에게대하야 당분간수업료면제를하고 도적당한구제방법을 강구키위하야 요사이대전읍당국에 수재피해를 입은그학교아동의각가정 상황조사를의뢰하엿다한다

路上強盜就縛

【居昌】 지난구일오후구시경에 거창군남상면대산리 허광실(南上面大山里)(許光實)(二四)외 상인이 소장에갓다 도라오는길에 읍내에서오리쯤되는 상삼미공동묘지부근에서강도범명이출현하야 장작쪼각으로 네사람을구타하고 현금이원오십전을 강탈도주하려다가전긔허광실과격투끄테 마춤경관에게 체포되여엄중취조중이라는데 범인은 거창군가조면마상리정귀룡(加祚面馬上里鄭貴龍)(二五)으로 종일소장에서 전긔사인의 관계를보고잇다가 그와가티 미행한것이라한다

簡易學校 經營講習會

【大田】 충남도에서는초등교육의보급촉진을 괴하는동시 에부락개학(部落開學)의리상을실현키위하야 본년에신설한 도내간이학교이십팔개소훈도전부를시월이일부터 삼일간 도청제일회의실에모아노코 간이학교 경영강습회를도교육회주최로열기로되엿다한다

呼令에不服한다고 學生을毆打致傷

晋州高普의不祥事

【晋州】 작년진주고보 (晋州高普) 독서회사건에 관하야학생들의 다수히피검될때에 학교당국으로써 여러가지 실태가잇섯다하야비난이 적지안든바 또다시선생이 어린학생을 구타하야류혈이 랑자한불상사를 이르키엿다

지난십일오후한시일학년갑조실습시간에 학생들이 운동장에풀을뽑기위하야 라렬 하엿든바그중박평주(朴平柱)(一六)란학생이선생이 서라는장소에 서지안엇다하야 그시간담임 이엿든동교박물교수(博物敎授)백목(白木)선생이손에들엿든 가위로전기학생의머리를 세번식 이나따리엿는데따린곳마다류혈이랑자하야치료이주일을요하리라는데학부형측과일반사회에서는비난이자자하다고한다

白木敎諭談 故意는안이다

박평주군은 평소에도 얌전할뿐아니라 성적도 우량합니다 이번잘못은 사회에 대하야 무어라고사죄할수가업습니다 그러나 결코 고의로한것은 안입니다운운

高原郡農作歉凶

長霖과虫害로 農家人心極度恂恂

【高原】 함남고원군일대에는 금년의 장림(長霖)과해충(害虫)으로농작물은태반이나 전멸상태에빠저잇던중 지난 사일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폭우는 그이튿날 오후다섯시반경에야 끈치게되엿는데 그리자고원남쪽에잇는구룡포(九龍浦)가범람하여 그부근전답의 피해는삼천오백여정보에달한다는바 더욱이 도작(稻作)은 밭수괴에 침수되여 벼ㅅ니삭이흑사병(黑死病)에걸니여신설된 고원수조(高原水組)구내의 도작은 례년에비하여 오할이상의 감수를보게되엿다는데 금번은 고원군일대의도작상황은흉작을면키어렵다고일반농가에서는크게우려중에잇다고한다

扶餘記者懇親會

【扶餘】 지난구월팔일에 부여군림천(林川)읍에서 군내에잇는 각신문지국원이 회합하야 하로동안이나마서로 유쾌히 담화도교환하며놀목적으로 간친회를 개최하고여러가지로 이약이하든중 부여군내는 타군에지지안케 언론긔관이잇스나 한등의 가른보조를취하야 협동적으로 타개할긔관이업슴을 절실히 늣기며금번조흔긔회에 부여긔자단 발긔회를조직한바 위원장는유창식(兪彰植) 서긔리재철(李載喆)도선정하엿는데 총회는 래십월십일장소는부여읍으로정하엿다한다

再建農組員 五名無事釋放

【定平】 정평재건농조사건관계자 서형풍(徐衡豐) 신성순(愼成舜)외 삼명은 지난십일일무사석방되엿다한다

實習時間過多로 扶餘公普生盟休

장시간로동을감당할수업다고 敎育界에重大問題

【扶餘】 충남부여군 은산(恩山)공립보통학교생도들은 지난팔일에 돌연동맹휴학을 선언하고 등교치안엇다는바 원인인즉 근일 학교당국에서 공부시간을단축하고 실습시간을 연장하야 도저히 체력상 감당할수업다는 것이라는데 급보를접한 소관부여경찰서에서는 지난구일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서장이하고등계주임과 형사등 사오명이현장에 급행하엿스며 동교 유정(柳井)교장은 군당국에 보고하는등 사태는자못 심상치안흔모양이라한다

上海가고십허서 拳銃窃取한者

執行猶豫言渡

【平壤】 국제도시상해를동경하여 권총을절취하엿든 소년평양부신양리(新陽里)양복직공리은섭(李恩燮)(一七)에관한절도급총포화약취체위반사건은평양지방법원 서전(西田)판사가 주심으로 심리중이든바 십일일오전에 징역일년집행유예(但三年間執行猶豫)의 판결언도가 잇섯는데사건의내용은 피고가철이포(鐵三浦)어떤동모에게 놀러갓다가 상해는 수입도 만코 살기가좃치만 편위험한곳 임으로누구나 권총을휴대하고 단인다는말을듯고 가고는십지만 권총이업서서 애를 태우고잇다가지난칠월십이일부내동정(東町)륙군관사 모대위의집에 드러가『모젤』식권총과탄환이십발을절취하엿든것이라한다

定平農組事件 九氏滿期出獄

【新上】 제일차정평농민조합사건(定平農組事件)관계자중일심판결에 불복공소하야 경성복심법원에서 삼년체형언도를 밧고함흥형무소에 이감되여 이래복역중이든 한맹노、김봉내、리장영、리수현、김상렬、김윤해、원회익(韓孟魯、金鳳來、李章永、李熹鉉、金相烈、金潤海、元會翊) 등여섯사람과 서대문형무소 에서 복역중이든 김영두、리봉내 한목상(金永斗、李鳳來、韓穆相) 군은지난십일일만기출감되엿다

嶺南의名物 釜山鬪牛大會

【釜山】 영남의명물 소싸홈(鬪牛)은 매년 추석명절을 긔하야 년중행사로 개최되는바 부산 투우대회(釜山鬪牛大會)는 오는구력 팔월십륙、십칠 십팔의 삼일간 거행 하게되엿다는데 경남각지에서 선발되여 오는 소의용사 사십여두가 모히여 스페인의 투우그대로를 연출할것이며 례년에의하야 대성황을 예긔한다는바 주최는부산투우구락부이며 동아、중앙、본보 삼지국이 후원한다고한다

金剛山探勝團員募集

漢芝面支局 龍山驛 共同主催

來二十二日夜出發

【漢芝面】 우리의강토를전세계에자랑하야 조선의존재를 알리게하는천하명승지금강산은지금에 천자만홍(千紫萬紅)으로 꿈게 단장하고 탐승객을부르고잇는데 본사 한지면지국에서는 룡산역과 공동주최로 오는이십이일 룡산역의 휴일을리용하야 내외금강탐승단(內外金剛探勝團)을 모집키로되엿는데 이긔회를리용하야 다수참가하기를 바란다고한다

一、會費 十五圓(汽車賃、食事、宿泊料全部)
一、募集人員 三十名
一、申込所 龍山驛內(小林氏電話二〇九番) 市外漢芝院四一六 朝鮮日報漢芝面支局(電話三三番 一三九一番 京城公平洞서울旅館)
一、締切 九月二十日
一、出發 九月二十二日午後十時臨時列車
一、歸着 九月二十五日午前六時三十分(龍山驛着)

約婚女疑心하고 青年飮毒自殺

【仁川】 부천군소사(素砂)면상리(上里)에 본적을둔 시내신정구보(久保)상유점점원 리성남(李成南)(二○)은 지난 십일오후육시경 시내신화수리(新花水里)삼백팔번지 최영서의집에서 다량의쥐잡는 약을먹고 고민하다가 집안사람에게 발견되어즉시 천구(川口)병원에서 응급수당을하얏스나 마침내 절명이 되엿다 전긔리성남은 최영서의장녀련홍(蓮紅)(一九)과지난봄에 약혼한후 사소한감정으로약혼녀를 의심하야 철도자살까지하랴든일까지 잇섯든바 지난십일에도 역시사소한일끄테 전긔와가티 약혼녀를 의심하야자살한것이라한다

地方人事

◀金龍治氏(全北高敞高普校長) 赴任人事次 去十日本社高敞支局來訪
◀金鍊愛氏(高敞高普校敎) 同上

探偵小說 艷魔 (77)

徐東山 作 金奎澤 畵

함정 (一)

오늘밤에도 허철이 드러와 안는것을보기가 무섭게 향조는딴손님을 떼치고 쫓차왓다

『웃덴 나하ー츤』 어데서 배웟는지 이러케귀떠러진독일말로 인사를하며그엽헤가안는다

언제보나 어설픈 허철의얼골도 향조의 보조개가 옴폭패이는 웃는낫을보면 얄연히화기가 떠돈다。

『아버지 좀 어떠세요?』

허철은 그의부친이 요지음병이나서 그래 그 시중을하노라고 향조에게 이약이하엿든것이다 그는 최근의 사단이외에는 가정의 이약이를 거의다 향조에게 까밧치엇다。

원래 남녀가 맛나 이약이할때에 자긔의 비밀을 먼저이약이하는사람이 올케 반한사람이니까ー。

허철은 위스키ー를 석근훗트레몬을 향조는 칼피스를각기 한잔씩 압헤노코 안젓다

『참 당신은 친구도업수?』 무얼 생각햇는지 향조가마시든 칼피스잔을 내려노흐며 뭇는다。

『친구?……업기는왜?』

『잇긴 멀잇서……늘봐야 혼자와서 혼자 오득하ー니안젓다 가는걸!』

허철은 우섯다。사실 가치술잔이라도 먹을 친구가 멧츤업는것이 아니나 생각하면 구름별도 맛난적이업다 향조를 눈독드린 뒤로는 친리를하게 노는것도 조치만그래두 각금 양념으로 동무를데리고와서 놀기도해야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못가랑못잡어올가?』

『아이구! 그래선 무얼하게』 향조는 일부러 놀내는듯이 눈을 홉뜨다 허철에게는 그것이 어떠케나 엡븐지 볼대이를도다도다 해주고십헛다。

『그저 하나나 둘이면 조치』

『그러면 좀 불너올가?』

『응』

『어떤사람이 조아? 나처럼 소섭쟁이?』

『실허!『부게ー끼나『가은해가지고……그러고 술먹으면 주정하고……』

『허허허허 그럼 나버들 미역국이로군?』

『당신은 뻬노코……그러치만 당신도 좀 효가라까해저야 해오……인전 봄도 오잘그렛스니깐』

『호가라까 해질수가 잇다면 오죽이나 조켓소만』

허철은 우연히 한숨을 어루만지며 한숨끄테 다시뭇는다

『그건그러고……그러면 회사원을하나 데려올가?』

『못서……술먹어도 집에서기다리는 마누라를 생각하고위스키ー잔수를 주판알도알고먹는걸……』

『그러면……』

하고 허철은 생각하엿다가 튼눈사츰이나 회사원이 아니면 학교교원인데 그것은 향초가더욱실혀할것이고……영호? 되엿다。

『탐정을하나 데려올가?』

『탐정?』

향조는 이상스럽게 눈에망채가 빗난다。ー맛치 그맘을 기다렷든듯이ー

『옹』

『조아조아……내 그 탐정이란어떠케 생긴 사람들인지 좀구경할테야』

『탐정이래야 그저 사람이지별 달른것잇나!……그런데말이야 그이가 오터래도 내가 탐정이라고 가르켜준 눈치를 뵈여서는 안돼요 응! 그저시침이를 뚝 떼고 그냥 내친구로만 아는체해요』

영호가 엽헤서 듯는다면 귀통이를 한번 쥐어질너줄소리다。

개집에게 반하여 이것저것 정신못차리는 사람의 시끔속답에『소에게 물닌놈』이라고한다。

허철이가 정히 그꼴이다。

좌우간 그런것은 생각할 여지도업시 그는 영호에게 전화를 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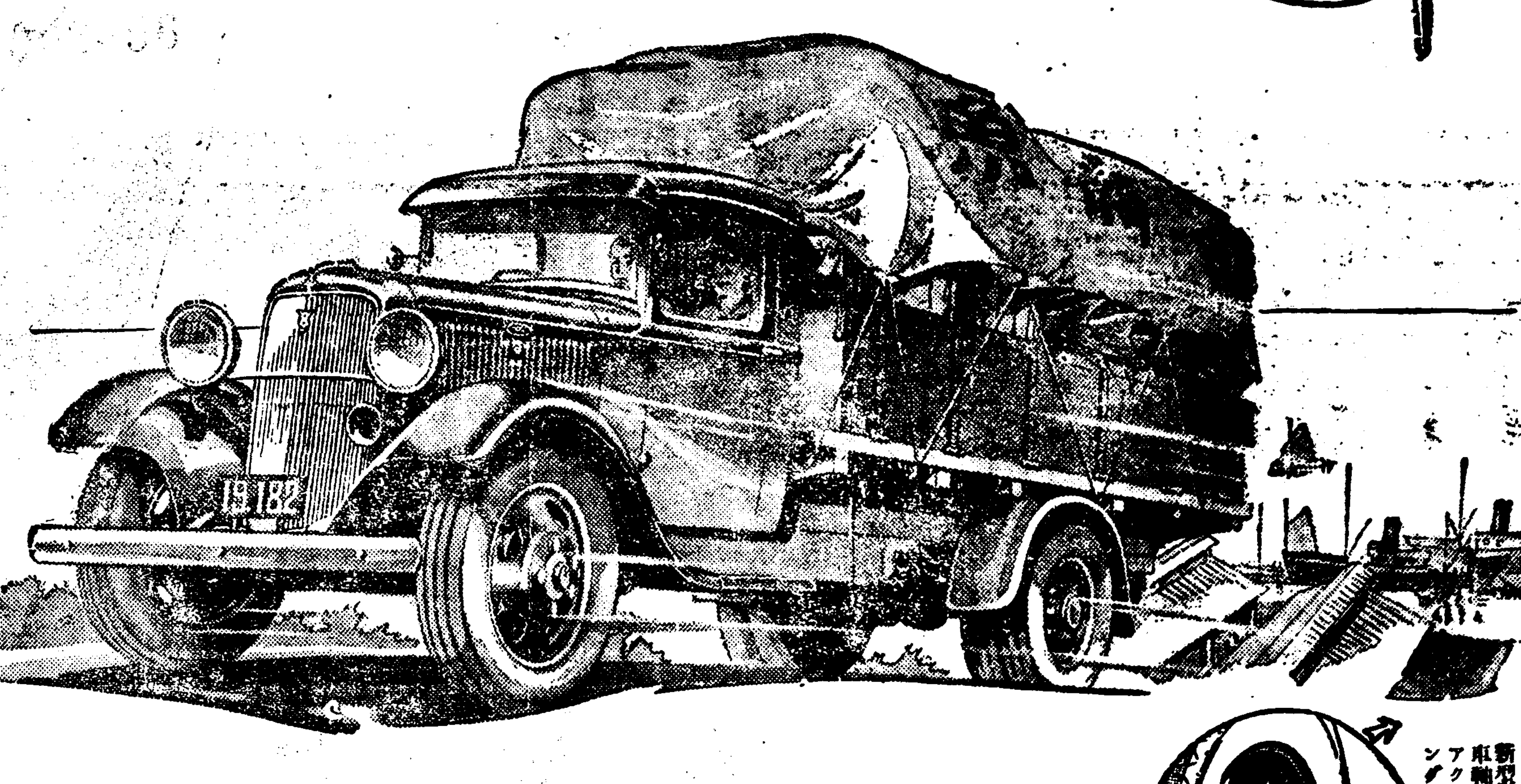
일이 공교하게 되느라고 영호는 영호대로 머리가 흔난한데다가 분이 복밧처 어렵줄을 모르는판이오 더구나 당장은 무엇 일에 손대일것도업는지라 허철이 불으는대로 서슴잔코 뛰여나오게 된것이다。

영호가 빠ー떼커스에 자동차를 몰고왓슬때는 아직초저녁이라 그런지 손님은 멧패업고 한편구석에가 허철과 향조가 부려안저 오손도손 중얼거리든판이다。

그는 허철과 이곳에서 맛나기는 처음이요 또 전에 향초를 보지도 못햇슴으로 그들사이가 각가워젓다거나 하는것은 아직것 알지못하엿든것이다。

그러나 서이서 마주안저 몃마디 이약이하는 동안에 영호는 두사람사이의 관계를눈치채이만도남엇다。

牽引力은トラクター에相等하고
速度는特急列車와갓다



フォードV-8トラッ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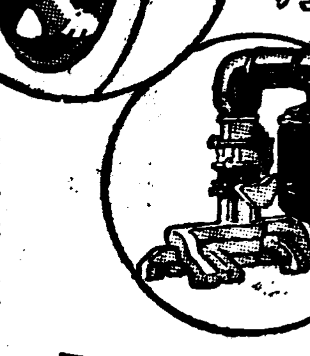
如何한價格의他車보다도一層快速走行하오。

同級의如何한トラックー보다도一層堅牢하야더간흔重量品을運搬할수잇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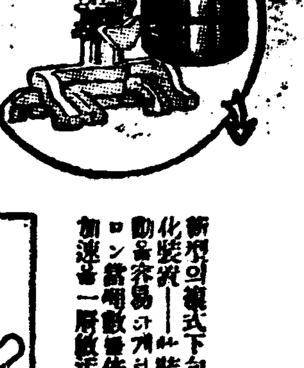
ガソリンオイル의消費와維持費에잇서서는フォード會社가至今까지製作한如何한トラック보다도더욱經濟的이오。

詳細는아무조록最近한フォード特約販賣店에照會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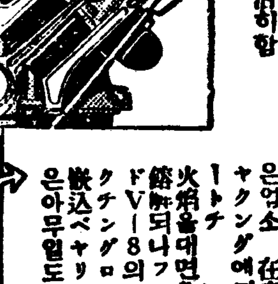
6大特長



新型의¾浮動式後車軸ー今荷重은アクスルハウジング에달렷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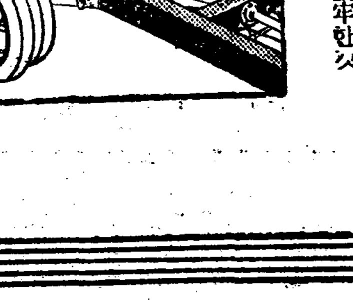
水筒에와인シリンダーウオール와クランクグース의길이全部를冷却식히요。



新型의複式下向通風氣化裝置ー새裝置는始動을容易하게하고、ガロン當哩數를增加하야加速을一層敏活케함

クロンズ製コネクチングロッドベヤリングー此ベヤリング는滑擦磨滅의걱정은업소 在來ベヤリング에ブロートーチ火焰을대면急히熔解되나フォードV-8의コネクチングロッド嵌込ベヤリング은아무일도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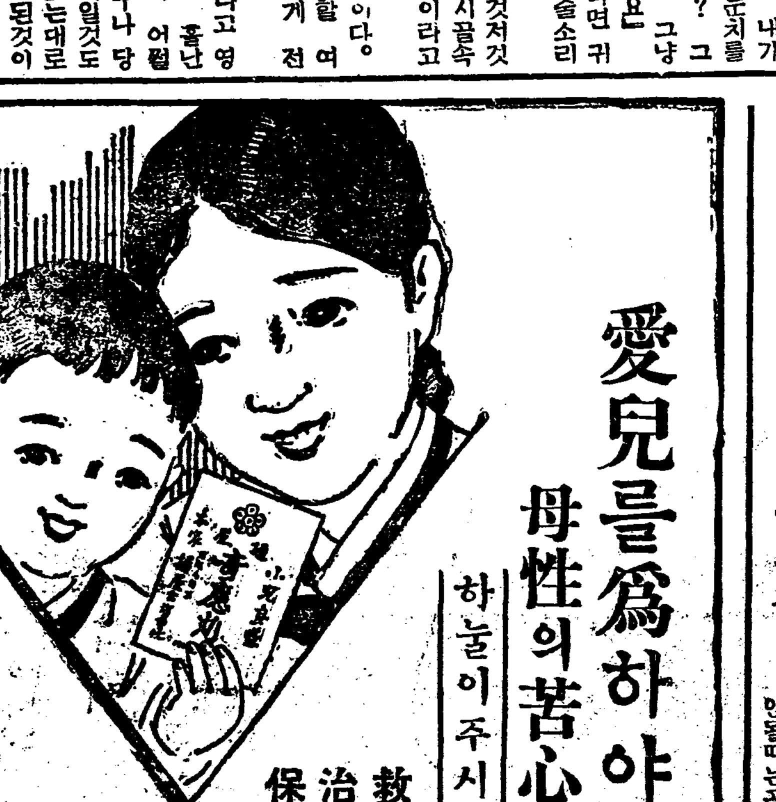
80馬力의フォードV-8トラックエンジンー一番普通의燃料로作動優秀한トラック用特殊パワーヘッド



フレームー同級의다른トラック、フレーム과比較細에亘하야比較하고縱材、橫材全部가一層堅牢한것을注意하시오。

橫濱 日本フォード自動車株式會社 子安

●工夫中 머리가멍하여 욱신욱신하야 집중이 안되는때는
ノーシン(노ー신)
을잡수시요 머리가 시원하고 愉快히되여 工夫가 愉快하게되오
◆어느藥店에든지잇소



愛兒를爲하야 母性의苦心이헛되지안아
하눌이주시는이育兒名藥
救急에……먹이여直接奏効하고
治病에……써서諸病을解消하며
保健에……連用하야藥効가偉大한
小兒良藥 育兒之友 樋屋奇應丸
主効 보채는애、회배、신열、기침、경풍、靑便、下痢、夜啼、손님、홍역、胃腸衰弱、其他體弱한小兒
樋屋奇應丸은오랜傳統을近代科學化시긴臨床醫學을通俗的으로家庭에薦勸하는育兒의金字塔이오小兒助命의金粒입니다
大阪天滿 本家 樋屋奇應丸

피부病의良藥 尾澤 全治水(전치수)
一般피부病特히 ●말은옴●무좀●음부습진●버짐●毒虫害
價格 ¥0.20 ¥0.30 ¥0.50 ¥1.00
全國到處의藥店에有
東京神田區九段下大通 本舖 合名會社 尾澤商店

地方青少年男女及學生諸君에게 好職業
簡易高尙有利業務依託 收多見本無代送呈
大阪東淀川局私六號 文明之日本社

本社直屬 新舞臺 西鮮巡廻
開城秋期訪問公演 連日滿員謝禮
東亞、中央、朝鮮、每申、滿蒙(以上無順) 五大新聞支局記者團後援 讀者慰安의밤 正刻前記錄的超滿員謝禮!
新舞臺
◇延安訪問◇大公演
九月十二日밤브터
短期興行! 每日交換 八時二十分開演
新築中 圓成社 電光九五九番

百合花를 살결에비하면 仁丹石鹸으로 씻슨분의 살결美와 香氣에맛겟다
거품낭이아조조흔
仁丹石鹸 一個十錢

九月十三日堂堂大公演
見よ!!初秋、映畵シーズンに君臨する此の待望久しかりし歐洲名畵二名篇!!
始映時間 晝の部十二時四十分 夜の部六時五十分
上映順
1、短篇漫畵一卷
(晝の部十二時四十分 夜の部六時五十分より)
2、獨逸ウファ特作日本版 監督ゲルハルト・ラムプレヒト 主演ロルフ・ヴェンクハウス
△少年探偵團 八卷
未知の冒險への素晴しい好奇心ー貴方の心の中にあの幼き日のわくわくした感激が蘇って來るでしよう
3、獨逸ウファ超特作日本版 監督グスタフ・ウツキイ 主演ルドルフ・フォルスター
△朝けや 九卷
世界大戰!!世界中を敵に廻した獨逸!男子の殘らず戰線に立ち女子の殘らず故國を守った悲壯
明治町一 電本一五〇 浪花館

十四日突如公開
初秋映畵界第二陣に放つ三大名畵週間!!全京城女性ファン待望の母性愛と日米親善の絕好プログラムを御見落しなき樣に!!
魔獸タイガ大入滿員御禮
大人卅錢 小人廿錢(階下席)
日米親善映畵の豪華篇 パラマウント超特級日本版
ウイリアムS・マックナット グローリア・ジョーンズ
荒波越えて 全六卷
關東說明界の重鎭 松井翠聲 リチャード・アーレン ジュディス・アレン 主演
新興キネマ超特級現代劇 原作 山內英三 監督 溝口卓明
泥濘を行く女 全九卷
歌川八重子 小役金澤伊都夫主演 沖本映子、大泉浩路 生方一平共演
フォックス超特級日本版 ワルター・ラング監督 グリリアン・ドムブソン 原作舞臺劇の映畵化
女性暴君 全八卷
『暴君ネロ』主演のエリッサ・ランディ主演 アーネスト・トルエックス タビワト・マーナーズ マジョクー・ラムボ
永樂町 電本三〇二 中央館

三南水害義捐金品

▲本社接受＝十二日午後五時까지整理分▼

現金累計 三萬一千八百四十五圓二十五錢

物品累計 七萬六千八百六十五點

一金六十七圓三十九錢 京城府桂洞 大東商業學校職員及生徒一同

一金三十五圓十錢 京城府橋下洞 培花女子高等普通學校職員及生徒一同

一金二十一圓四十錢 京城高等商業學校朝鮮人學生一同

一金十四圓三十二錢 忠南瑞山郡 所遠公立普通學校生徒一同

一金三圓十五錢 海州郡代東面 岱車公立普通學校生徒一同

一金二圓 江華郡西島面注文里 鎭村耶蘇敎會

一金二圓 牙山郡北面松村里 芙蓉共勵組合員一同

一金五十錢 京城府竹添町三 中村すみゑ

고무靴三百足 沙里院 金振璘

本社新院分局經由分

一金一圓六十五錢

內譯

五十錢 李學詛
三十錢 趙羲萬
十錢 朴公三
十錢 田吉澤
十錢 趙羲元
十錢 李奎炳
十錢 閔飆植
十錢 吳敎根
十錢 閔斗植
五錢 洪仲弼
五錢 金昌根
五錢 朴世仁

本社松禾支局經由分

一金三圓十一錢 (送料四錢除)

內譯 松禾郡□□敎會

五十錢 楊信學
三十錢 楊浩泳
三十錢 楊達周
二十錢 楊夏泳
二十錢 金俊燮
十錢 楊斗泳
十錢 張壽吉
十錢 楊元泳
四十錢 楊達河
五錢 楊德源
十錢 楊柱成
三十錢 서장여
十錢 리명선
十錢 묘의선
十錢 박진용
十錢 강형
十錢 홍성여

本社鐵原支局經由分

一金六圓三十錢

內譯 鐵原驛前外村里

二圓 河寶福

鐵原郡於雲面明雲洞民一同

三十錢 徐錫柱
三十錢 鄭致夏
三十錢 孫熙睦
二十錢 沈宜淵
二十錢 吳古洪
二十錢 徐演義
二十錢 李尙讃
二十錢 羅釆仁
二十錢 李圭復
二十錢 高德圭
十五錢 申必植
十五錢 權永洛
十五錢 金廣文
十五錢 洪鍾稷
十錢 金永天
十錢 徐禮守
十錢 金榮穆
十錢 權尙允
十錢 申鳳植
十錢 金武春
十錢 李奎瑞
十錢 崔道浩
十錢 趙昌玉
十錢 金正業
十錢 裵應春
十錢 鄭致萬
十錢 金燦述
十錢 鄭鳳吉

本社平澤支局經由分

一金一圓四十一錢

內譯 興宗振興夜學院兒童

三錢 禹奎完
三錢 李容哉
三錢 崔德卿
三錢 崔五卿
三錢 崔華卿
三錢 徐廷根
三錢 申三伍
三錢 曺官奉
三錢 崔文卿
三錢 韓相鎭
三錢 韓相玉
三錢 姜根元
三錢 陸鎭玉
三錢 鄭英範
三錢 金雄培
三錢 鄭昌洙
三錢 金昌洙
五錢 崔日星
五錢 韓成澤

五錢 金明根
五錢 文明玉
五錢 鄭昌烈
五錢 鄭昌浩
三錢 崔仁卿

女子部

十一錢 金仙玉
五錢 崔日女
三錢 崔柔順
三錢 崔仙女
三錢 陸三女
三錢 金芙蓉
三錢 崔今順
三錢 朴玉分
三錢 閔炳嫌
三錢 金占順
三錢 趙炳順
三錢 鄭奎雲
三錢 鄭瓊宋
三錢 鄭順伊
三錢 鄭明燮
三錢 韓士喆
三錢 韓順德
三錢 李元三

東明學校有志兒童一同

高陽郡崇仁面

一金三圓二十二錢

內譯

十五錢 李玉男
五錢 金泰德
十錢 宋載順
四錢 李漢善
五錢 孫應錄
五錢 金熙慶
三錢 崔貞姬
五錢 孫姬玉
十錢 崔春鳳
十錢 吳致雲
五錢 魚允相
二十錢 梁在漢
五錢 李鍾益
五錢 孔淑女
五錢 尹仁秀
二十錢 金永培
五錢 李德萬
十錢 崔承萬
十錢 金熙斗
三錢 朴永奎
五錢 李時雨
十錢 金甲同
五錢 李起嵓
五錢 李振溶
五錢 金胤成
十錢 朴順貞
五錢 宋興烈
五錢 高命龍
五錢 金玉粉
五錢 盧孝信
三十錢 鄭明雨
五錢 孔鱗洙
五錢 柳仲山
十錢 吳四出
二錢 柳甲溶
十錢 崔玉華
五錢 韓貞林
二十錢 金鍾述
五錢 朴永周
十錢 崔春植

本社金浦支局經由分 (第四回)

一金九圓四十二錢

但精麥一斗三升 現金으로換算每升十錢式

內譯 郡內面坎井里青年團扱分

五十錢 文仙傘
三十錢 文斗鉉
三十錢 李興石
四十錢 李庸俊
三十錢 李股甲
十錢 李斗星
十錢 朴点用
十錢 曺敬萬
二十錢 李重鎬
二十錢 李重根
十五錢 李庸國
五十錢 李点山
十錢 李相鳳
十錢 劉昌玉
十錢 曺元燮
十錢 李石範
十錢 金有福
十錢 李今童
十錢 曺一萬
十錢 李吉山
五錢 徐春植
十錢 曺敬男
十錢 李載鳳
十錢 李相得
二十五錢 劉漢用
二十錢 宋貴賢
十五錢 劉龍安
十錢 劉漢南
十錢 朴日萬
五錢 劉先宗
五錢 千干蘭
五錢 孔漢奎
五錢 趙壽德
精麥二升 李点釗
精麥二升 朴敬萬
精麥一升 李周星
精麥一升 文萬石
精麥一升 崔敬烈
精麥一升 曺慶宗
精麥一升 沈禧旻
精麥一升 文甫鉉
精麥一升 李吉鳳
精麥二升 李萬山
十五錢 鄭濬
十五錢 康仁壽
十二錢 文庚成
十錢 崔四用
十錢 李元夏
三十錢 李鍾漢
十錢 李鍾應
二十錢 金鍾先
二十錢 吳鴻燮
十錢 崔元基
三十錢 趙敦行
三十錢 洪先東
三十錢 姜炳孝
二十錢 朴石遠
二十錢 無名氏

現金小計 一百六十六圓九十七錢
物品小計 三百點